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보고서 해설

- 무엇을 위한 신용·경제사업 분리인가? - - 관점이 빠진 연구보고서 -

1. 한국금융연구원의 최종보고서, 드디어 공개

지난 6월 29일, 농림부는 한국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최종보고서는 그 동안 공개되었던 내용과 기본 방향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협중앙회는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며 조직 운용의 비효율성이 있는 만큼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신·경분리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2. 무엇을 위한 신용·경제사업 분리인가?

그러나,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신·경분리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농업현실에 적합하고, 발전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즉, 농민조합원은 왜 신·경분리를 해야 하고, 어떠한 원칙을 관철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농민조합원들은 신·경분리의 목적을 농민조합원의 이익 증대와 회원조합의 활성화로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농민조합원과 밀착되어 있는 회원조합이 활성화되어 있

1단계 : 현행 농협체제 내에서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신·경분리 효과

2단계 :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등 여건이 성숙되면 3개 법인(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으로 완전 분리

3단계 : 조합의 신·경분리, 고객 및 지역중시 경영이념 및 법체계 확립 등 농협의 장기비전 완성(3단계에 대해서 농림부는 연구 범위 밖으로 중앙회 신·경분리와 연계하여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라는 초미의 협동조합의 구조개편 문제는 농업·농촌의 현실과 조합원의 입장에서 사고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관한 논의는 93년에 개최된 한농연과 전농의 공동토론회에서 제기되었으며, 이후 농발위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된 바 있다.

당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협동조합이 신용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경제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경제사업의 전문화를 통해 농민조합원에게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신경분리를 다분히 경제·지도사업의 적자로 인한 신용사업의 부실과 이로 인한 국민부담의 증가 우려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물론 농협중앙회가 가진 대사회적 위치로 봤을 때, 슈퍼뱅크인 농협중앙회의 부실이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가져가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농협의 지도·경제사업이 얼마나 신용사업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철저히 농업을 배제한 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신용사업의 부실이 지도·경제사업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어 주는 안되겠지만, 이러한 시각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농민조합원과는 별개로 농협중앙회의 은행을 독립시켜 이를 유지하는 것만도 국민경제의 부담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된다.

3. 최종보고서의 문제점

2단계까지 살펴보면 3개법인(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완전 분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의 각각의 역할과 이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신경분리는 단순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구조를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 중심으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거나, 협동조합의 원칙에서 벗어나 형식적인 신경분리에 그치거나, 중앙회 중심으로 개편된다면, 이는 오히려 농협중앙회를 탈농민적이고, 비협동조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애매모호한 조직체로 만들게 될 것이다.

시군지부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중앙회의 신용지점으로 만든다거나, 경제사업을 경제자회사에 맡겨 현재와 같이 농민조합원과는 별 관계없는 경제사업을 유지시키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한 예이다.

따라서,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협동조합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부족하다. 현재의 거대한 중앙회와 빈약한 회원조합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군지부가 그대로 존속해서 회원조합과 경합하거나, 회원조합마저 중앙회의 하부조직으로 바꾼다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단계론적 분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음은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중앙회의 역할이다.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지도·감독·농정활동 등 자본과는 구별되는 특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회의 역할은 협동조합 고유의 모습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다.

그리하여 신경분리 논의는 애초에 중앙회를 비

사업체제로 재편하여 비사업적 기능인 지도 및 농정활동을 강화하지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나,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사업체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중앙회 안에 정책금융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중앙회의 자율적인 운영 및 운동체적 역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경제사업연합회는 각 회원조합의 사업을 연결시키고, 이를 회원조합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농민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2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사업연합회 소속에는 품목조합이 없다.

이는 2단계 시행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그 때까지 품목조합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경제자회사를 통해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의 이익실현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자체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제자회사는 그 동안 경제자회사에 대한 회원조합의 통제문제나 이익 배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었다.

또한, 품목조합의 자발적인 결성체인 품목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 조직 내 어디에 소속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음으로 해서, 경제사업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시각 내지 농협중앙회의 시각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조합의 은행으로서 역할과 함께, 농업금융기능(농업자금조달 기능과 지도·경제사업 지원기능)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신용사업연합회가 회원조합의 은행과, 원활한 농업금융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체의 지배구조를 농민조합원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사회 내에 두는 소위원회만으로는 어려운 한계를 보인다.

4. 신경분리 논의를 새롭게 하자

결론적으로, 이번 신경분리 보고서는 농협중앙회가 그전부터 추진해왔던 각종 자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탈바꿈 등 경영주의를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협 내에 존재하는 중앙회 중심의 운영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농협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농민조합원이 원하는 신경분리와는 더욱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93년 농발위를 시작으로 협동조합개혁 문제에 서 신·경분리를 포함한 전체 조직 체계가 부각되었던 것은, 현 협동조합의 구조 자체가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을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 중심으로 바꾸어 내지는 것이 신경분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단지 경제사업연합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협동조합의 사업 운영이 경제사업 중심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처럼, 이번 금융연구원의 신경분리 보고서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 국회에 제출된 이번 금융연구원의 보고서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2년 이내 시행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 동안 한농연은 신경분리가 최초 제기되었던 원칙에 맞게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농연**